

진리에 순응하면서 넓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29면에서 계속

가만히 멍멍이처럼, 바보처럼 가만히 뒷산이나 쳐다보고선 가만히 명상이나 하고 이렇게 앉았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마조 스님이 말합니다. 글썽 딱 가부좌를 틀고 딱 앉아서 좌선을 한다고 앉아 가지고는 움푹도 안 하다가 밥 먹을 때 '공양해라' 이러면 일어나거든요. 오줌 마려우면 일어나고 똥마려우면 일어나고, 그 외에는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가만히 보니까 아주 이거는 큰일 낫거든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이 씨가 먹히질 않아요. 그래서 하루는 기왓장을 가지고 그 툇 밑에다가 놓고는 딱딱 깔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마조가 내려다보니까 우리 스님이 참 이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레 좌선하다 말고 "스님! 그 뭐 하시려고 기왓장을 그렇게 가십니까?"

여러분이 이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니 "거울을 만들려고 그러다." 하니 "아이구, 망령이 들었어도 이걸 뭐 보통 망령이 든 게 아니고 어떻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님! 그 기왓장을 깔아 가지고 거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니 "너는 그렇게 틀고 앉아서 부처를 어떻게 이루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풍도 누려 일어나지 말고, 선이 끊어질 테니까, 아니 오줌도 누지 말아야 하고 먹지도 말아야 하고 그레 어떻게 선이 끊어지지 않지, 선이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끊어지니 어떻게 부처를 이루느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무릎을 탁 치고는 "아이구,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때서야 자기 은사한테 삼배를 올리고 "스님, 이것도 참선인 걸 몰랐습니다." 하더라고요. "참선이라는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리를, 이걸 몰랐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선 그때 깔깔 웃고 내려다보면서 한번 울었다고.

그런 이치가 있듯이, 여러분은 지금도 참선하는 거고 변소간에 앉았어도 참선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린 건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주 요렇게 정해 놓고 사는 것이 그냥 관념이 돼 가지고, 습이 돼 가지곤 그걸 때릴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이다 악이다 하는 생각에 매여서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의 도리를 알려고 하는 데 항상 뜻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재지변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큰 산불이 나서 엄청난 지역을 불태워 버리더니 우리나라에는 태풍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홍수와 물난리로 온 산하가 멍들었습니다. 역대 조사 스님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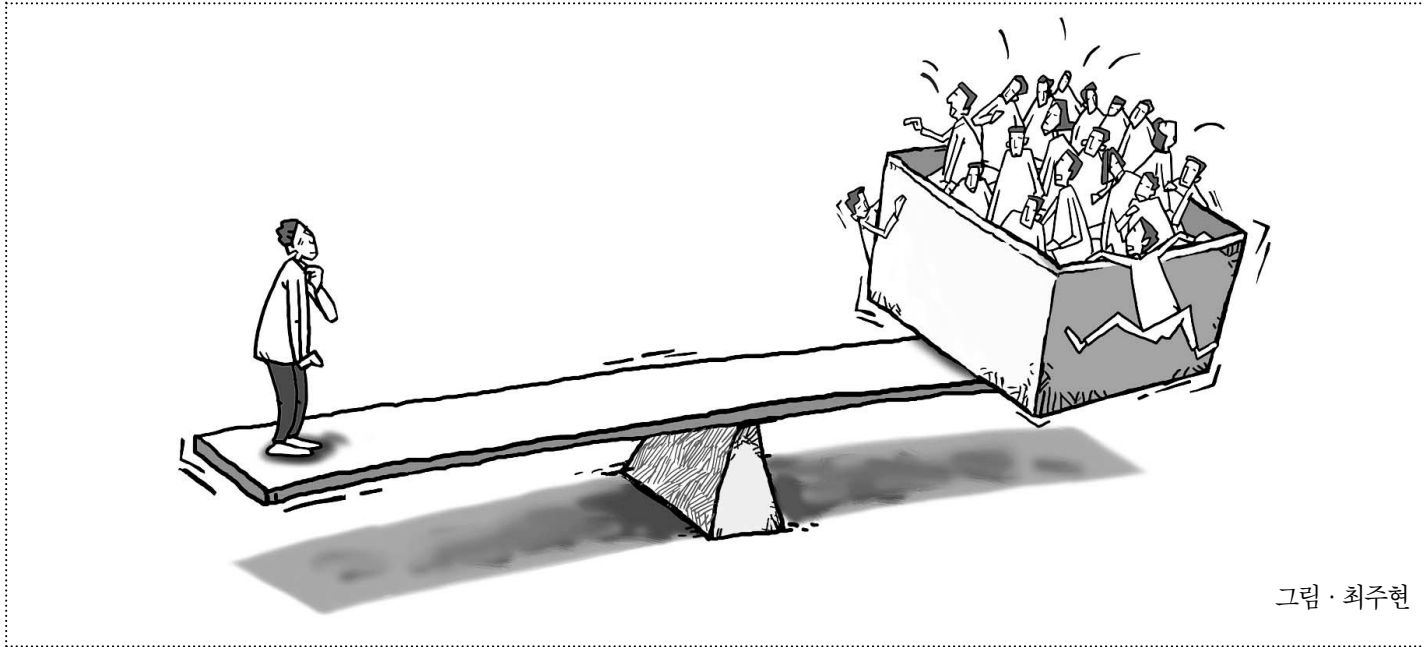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이상 부처님은 항상 살아 계십니다!

나 현존해 계시는 부처님께서서는 마음 도리로써 협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천재지변이나 그러한 사태에 무지한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마음을 내야 될지 스님의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진리에 순응하는 일이지요. 그대로, 사람들이 넓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는 게 없으면 가는 게 없듯이, 우리가 그런 것을 불상사라고 하지만 그게 불상사가 아닙니다. 그것이 태양열과 즉, 온기라고 합시다. 그 온기가 밑 물 찬 데까지 서로 대치를 해 주지 않는다면 살 수가 없고 또 그 소용돌이가 치지 않는다면 위의 것이 못 살고 아래 게 못 삽니다. 그래서 밑의 게 위로 올라오고 위의 게 밑으로 내려가야만 같이 먹고 삽니다. 서로 주고 서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다 더불어 물도 모든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물도 사는 거지, 생명들이 없으면 물도 죽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도 역시 그렇습니다. 인간들뿐만 아닙니다. 물에서 사는 거든지 들에서 사는 거든지 곤충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산에서 풀을 다 태우는 일들은 그 곤충이나 모든 생명들이 다시 새 뿌리 새 씨이 나와서 다시 먹게 하기 위한 도리도 됩니다. 이 모두가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그게 자연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누가 잘못해서 불이 났다.'

이러기보다는 '다, 더불어 같이 살기 위해서다.' 하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태풍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그거는 어떤 일로 그러나 어떻게 마음을 내야 될지 스님의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아들을 데려갔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것도 슬모가 있기 때문에, 외아들이고 아니고 간에 슬모가 있기 때문에, 다시 대처해서 다시 내보낼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한 치도 이거는 벗어날 수 없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자유스럽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기처럼니를 할 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반면에 모든 걸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치는 그런 것을 다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큰 그릇이 되라는 얘기죠. 그러므로써 대처를 다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실감나는 얘기 한마디 할 테니 들어 보세요. 내가 그전에 산으로 들로 돌아다닐 때 얘깁니다. 장마 질 때가 거의 왔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장마가 닳쳐올지는 인간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눈두렁을 지나다 보니까 물이 고인 웅덩이가 있었어요. 그 물을 떠서 눈에도 주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뭐, 날이 갠지나 그렇지 않은데 큰 개구리가 뒷다리에다가 뭍 걸고선 질질질 끌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선 자세히 보니까 알 있지요? 개구리 알! 그걸 떠내려 갈까 풀속에다 풀어다 놓는 겁니다. 어떻습니

까? 세상에! 그 물에서부터 질질질 끌고는 우거진 풀속에다 갖다가 놓거나, 제 자식을 얻어다가 풀잎 위나 나뭇가지 위에 갖다 놓고 그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쩌나 할 양으로 거기에 또 가고 또 가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더니 그 이틀 날이 되니까 그 작업을 다 했어요. 그 기다란 알집을 그냥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틀날 보니까 웅덩, 날이 갠지 시작하더니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치면서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데, 말도 못해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알까지 살리기 위해서 태풍 전에 미리 피난시키는 그런 개구리도 있는데, 여러분은 거듭 거듭 진화가 돼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

하고 그 자재권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만 자식을 위해 뿌리에 밑거름을 줄 수 있고 또 그 뿌리의 밑거름이 부모 조상들한테까지 가서 묵은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에게 효도를 못해서 가슴이 아프든가, 또 늙어 가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부모한테 효도만이 아니라 뭐 하나 한 게 없다면 그것이 바로 묵은 빚입니다. 나도 묵은 빚 때문에 많이 울었죠. 개구리도 다음 날 장마가 올 것을 알고 있는데 인간이 그란 못해서야 되겠느냐 이 소립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농사지어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옥수수나 수수도 올래는, 즉 몇 개월만 있으면 태풍이 심하게 불어서 온전하게 있을 수가 없잖아 할 때는 뿌리를 넓게 잡아요. 그래서 옥수수가 뿌리를 넓게 잡은 걸 보고 올래 태풍이 얼마만큼 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레, 그런 미물들도 미리 대비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지각까지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지각이 풍부한 인간이 어떻게 기복으로만 나가면서 도 깨비장난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살아서 귀신 짓을 하면 죽어서도 귀신뻔 못 돼요. 그런 습관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또 자기만 귀신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식들더러 귀신 노릇 하라고, 귀신 노릇 안 하면 안 되게끔 그냥 자꾸 산 자식들을 못 견디게 곁어요. 그러니 그게 부모입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서 귀신 짓을 하지 말아야 죽어서도 귀신이 안 되고 선신이 돼서 자식들을 돌볼 수 있고 자기가 낳은 것을 자기가 거둘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뿌린 거 자기가 거둬야 되죠? 그런데 자기가 뿌리고도 자기가 거두지 못하는 현상들이 모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 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가 자기를 못 믿고 자기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가 자기를 몰라라 합니까?

그러니 우리 오늘부터라도 서로 사랑하고 아픔도 돌 아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저런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도 전부 남이 아니라 바로 나일 거예요.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영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귀신을 다루는 사람이 돈벌이에 치중하고 명예를 구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서울출판 Tel. 02-313-5047 Fax 02-393-9696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당신에게 연꽃향기를 전해드립니다

혜정정사의 밀교수행강좌 모음집



복고TV에서 방영됐던 혜정 정사의 밀교수행강좌 26회분 모음집입니다. 컴퓨터로 볼 수 있고 일반 DVD로도 볼 수 있습니다. DVD로 볼 수 있는 것은 압축한 시디 1장입니다. 모두 10장이 한 세트에 되어 있습니다. 100세트 한정으로 제작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배송료를 포함해서 6만원입니다. 국민은행(예금주: 최종용) 계좌번호 661725-89-144651로 송금하시고는 반드시 전화 031)254-2585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송금확인과 주소확인이 되는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